

NOW

일본

# 산업리포트

일본-ASEAN 경제협력 50주년과  
경제공동창조 비전

# 일본-ASEAN 경제협력 50주년과 경제공동창조 비전

## 일본-ASEAN 과거 50년의 경제관계

- 일본과 ASEAN은 1973년에 개최된 합성고무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경제 관계가 시작되어, 2023년 우호적인 협력 관계 50주년을 맞이하였음.
- 2008년 일본과 ASEAN은 포괄적 경제연휴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 22년 일본의 대ASEAN 무역액(수출 + 수입)은 약 33.2조 엔이고 對세계 무역(약 216.3조엔)의 15.4%를 차지함.
- 지난 9월 일본과 ASEAN은 양자 관계를 정치, 경제, 안보, 환경 대책, 인프라 정비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관계인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
- 경제산업성, JETRO, 일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일본 경제계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시대의 일본-ASEAN 경제 공동 창조의 방향성을 제시한 “일본-ASEAN 경제공동창조 비전” 책정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설립하고 1년에 걸쳐 논의.
- 23년 8월 22일 개최된 일본-ASEAN 경제장관 회의에서 비전의 최종안과 행동계획에 합의, “일본과 ASEAN이 과거 50년간의 우호협력 관계 속에서 키운 신뢰를 원동력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자유 경제 사회를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공동창조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음.
- 지난 50년간의 일본-ASEAN 관계를 돌아보면 20세기 후반은 안행형(雁行型, Flying Geese Model) 경제발전으로 대표되는 일본 제조업을 중심

으로 한 직접투자 네트워크와 공적 금융을 통한 인프라 정비, 관민 협력에 의한 산업 인재 육성이 ASEAN의 공업화와 경제적 이룩을 뒷받침했음.

- 21세기에 들어 ASEAN에 의한 경제 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향한 움직임과 함께 가는 관계로 변화했고, 일본은 JAIF(일본-ASEAN 통합기금)에 의한 ASEAN 역내의 격차 시정, 금융면에서도 아시아 통화 위기 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거시경제의 모니터링 기관인 AMRO(ASEAN+3 거시경제 리서치 사무실) 설립, 경제 협력면에서 RCEP 협상과 경제 통합의 거점으로서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RIA) 설립과 같은 ASEAN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과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여 ASEAN으로부터도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그 사이 일본과 아세안의 관계는 크게 변화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온 ASEAN이 세계 성장시장으로 바뀌고 있음.
- 성장시장에서 많은 중산층이 생기고, 그 구매력에 의해 한층 더 성장이 이루어지는 ASEAN은 향후 세계 경제를 견인할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성장 센터로 2030년에는 일본의 GDP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이러한 ASEAN의 변화에 따라 일본은 ASEAN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쳐 나갈 필요가 있으며, 즉, ASEAN의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입장에서 일본과 ASEAN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는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
- 지금까지 일본기업들이 현지에서 함께 성장해 온 가운데 길러진 신뢰관계는 강하고 성장하는 ASEAN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 과제에 대해 이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선구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기대는 클 것이며, 이러한 ASEAN이 가지는 일본에의 기대, 반대로 말하면 일본의 강점을 일본

자신이 이해하고 기대에 응해 가는 것이 일본과 ASEAN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토대가 될 것임.

- 23년 12월 17일, 일본-ASEAN 우호협력 50주년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일본-ASEAN 우호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선언"이 채택되었음.
- 선언은 "인적교류" "경제협력" "안전보장"의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었고 경제협력 부문인 "미래 경제·사회를 공동창조하는 파트너"에는 구체적인 시책이 포함되었음.(참고2. 참조)

## 일본-ASEAN 경제공동창조 비전

- 일본-ASEAN 경제공동창조 비전은 일본-ASEAN 5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일본-ASEAN 간 신뢰의 유대를 차세대에 계승해, 향후 50년간을 전망하고, 새로운 세대의 경제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과 ASEAN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조(공동 창조)하기 위해서, 일본-ASEAN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략 목표와 방향성, 대응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양자의 경제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임.
-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과 ASEAN은 협력하여 탈탄소를 위한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Asian Zero Emission Community) 구상 등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대응, 오픈 이노베이션의 촉진, 사회기반과 커넥티비티의 강화, 글로벌 및 지역적인 과제 해결을 추진하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일본-ASEAN의 쌍방향 인적 교류를 확대함.
- 일본-ASEAN이 "안정과 번영의 기반"이 되어 "안전하고, 풍부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새로운 경제관계 모델이 되기 위해, 일본-ASEAN 경제 공동창조 실현을 향해서 4가지 기둥을 제세하여 일체적으로 진행함.

## 1. 다양성·포섭성을 양립하는 지속가능성의 실현

- "안전하고, 풍부하고, 자유로운"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규모의 과제, 나아가 국가간과 도시·지방 간의 격차 등의 도시의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이에 각국의 개별 사정에 맞추어 다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형태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트랜지션 등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대응, 서큘러 이코노미의 실현, 레지리언스 강화나 생활수준(웰빙) 향상을 위한 대응을 실시함.
- ASEAN 각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 형태로 탈탄소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조건, 발전 단계·속도 등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현실적인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경로를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국제 송전망의 정비를 통해 ASEAN 전역에서 전력을 공유하는 인프라의 정비 △카본 크레딧 시장을 구축하여 온실 효과 가스 배출권의 역내 유통을 향한 메카니즘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환경 대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시아-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에서 다양한 지원과 관련된 정책 협조를 실시.
- ASEAN 전역에서의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전자폐기물(E-waste) 등의 폐기물 적정처리 기술기반의 정비 △해양 플라스틱의 삭감에 이바지하는 규칙 형성과 환경배려 등의 의식조성 및 행동을 재촉하는 인센티브 설계를 추진.
- 또, ASEAN 각국에서 자연재해의 발생을 전제로 한 방재·감재에 관련되는 레지리언스 강화를 향한 인프라와 구조의 구축, 질 좋은 건강의 실현을 지지하는 제품기술, 장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라이프 라인을 통해서 지탱하는 구조(보험 등)의 구축 등을 통한 질 높은

생활(=웰빙)을 실현.

## **2. 국경을 초월한 오픈 이노베이션**

-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일본-ASEAN 쌍방의 기업과 대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해 짐. 이에 따라, 일본-ASEAN이 공동으로 창조 혁신을 하기 위한 환경·구조의 정비 대응 등을 실시함.
-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성장 분야를 파악한 후, 일본-ASEAN 대학교와 기업 등이 글로벌 공동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ASEAN 현지의 사회 과제와 기술 니즈를 파악하여 일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경험-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솔루션을 일본-ASEAN 공동연구할 기회를 확대.
- 또한, 일본-ASEAN 기업 및 대학교 등에서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거점 확대 및 기능 강화, ASEAN 현지 인프라 정비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공동연구 환경 정비 노력의 실시가 기대됨.
- 일본-ASEAN 기업의 가치 공동창조를 통한 혁신 창출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이 배경에는 신규 사업 창출에 필요한 경영자원과 가치 공동창출 사업에 대한 기업 내 이해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일본-ASEAN 기업이 서로의 니즈와 강점을 파악하여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 공동창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ASEAN 기업이 적절한 지원(공동창조를 위한 "장", "정보", "자금"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3. 사이버 피지컬 커넥티비티**

-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기반을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기존 산업을 새로운 산업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협력의 추진 등 대응을 실시함.
- 물리적 연결성 강화를 통한 일본-ASEAN의 경제기반 정비를 위해 일본-ASEAN에서 각국의 요구를 맞추면서 강인하고 안심·안전한 질 높은 인프라 정비, 일본이 가진 인프라 유지관리의 지시·경험·노하우를 활용한 인프라 유지관리 기술의 향상, 그리고 정비한 인프라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정비·규칙 형성을 마련
- 또한 일본-ASEAN을 포함 기존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책을 추진해 온 다각적 무역체제의 원칙에 근거한 자유로운 무역의 촉진, RCEP와 CPTPP를 비롯한 경제동반자협정의 착실한 이행에 더해, 현재 설계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체제(IPEF)의 구체화 등을 통한 국제적 메이킹에서의 협조, 원활한 물류망 구축을 향한 비관세 장벽(투자 규제와 무역 수속)의 철폐, 고도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포함한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의 실현을 향한 협력이 기대됨.

### **4. 활력있는 인적자본을 공동창조하기 위한 생태계**

- 일본-ASEAN의 경제 공동창조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Globalized Asian", 글로벌하게 활약하는 아시아인, 즉, 글로벌하게 이노베이션과 산업 변혁을 견인하고, "기술에 정통하고, 민주적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적으로 하이브리드한 인재(Technologically Savvy, Democratically Compassionate and Culturally Hybrid)"를 창출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필요가 있음.

- 일본-ASEAN을 무대로 한 다양한 인재의 쌍방향인 이동·윙경을 촉진해 브레인 서큘레이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대책을 일본-ASEAN에서 협력하여 실시.
- 이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ASEAN은 함께 인재의 배출·수용 양면을 통합한 인재 환류 전략을 책정하고, 그 전략에 기초한 포괄적인 시책의 책정·실행을 하는 것이 불가결함.
- 또 국가를 초월한 활동을 저해하는 고용환경과 생활환경 등에 관련된 여러 장벽의 철폐를 통한 인재 환류의 환경을 정비하고, Decent Work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Globalized Asian을 일본-ASEAN에서 배출하기 위해서도 일본과 ASEAN 각각의 공통 가치와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서로 가르치면서 함께 배우는 것이 가치 공동창조의 첫걸음이 됨.
- 따라서 ASEAN의 폭넓은 인재가 일본에서 배울 기회(일본 유학과 일본기업에서의 인턴·취직 등)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또한 일본의 인재가 ASEAN에서 배울 기회(ASEAN 기업 취직과 인턴, 현지 파견 등)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 또한 일본-ASEAN의 기업이 관·학·금융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일본-ASEAN의 인재육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본 -ASEAN에서 활약하는 사회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소셜·안트레프레너와 이노베이터를 비롯한 창업가와 그 창업가를 지탱하는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투자가 등의 Globalized Asian을 육성하는 환경을 정비.



## 논점

- 일본이 이 비전을 통해 ASEAN을 경제 성장을 지원해주는 대상에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써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ASEAN과의 경제 협력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
- 이 때 한국-ASEAN 간의 경제협력은 물론 한일-ASEAN 협력의 모습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
- 기존의 제3국 공동진출에서의 한일 협력이라고 하면 대기업 연합에 의한 자원개발 및 인프라 정비에 관한 사업이 많았지만,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사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ASEAN 우호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선언"에서 경제협력 부문의 시책 중, "iii. 스마트 시티 협력을 강화.", "iv. 중소 영세기업(MSMEs) 및 스타트업에 대한 것을 포함한 이노베이션을 지원."과 같은 내용은 한일에서 이미 좋은 연구, 실증실험, 선행사례가 많아 빠른 협력 추진이 가능함.

## 참고1: 비전 실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시책

### 1. 다양성·포섭성을 양립하는 지속가능성의 실현

#### 지구 규모에서의 지속가능성

- ASEAN 역내의 온실효과가스 삭제 및 배출량 제로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대책
- 각국의 특성,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발전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일본-ASEAN의 공동창조 사업 추진 및 기술 이전 실시
-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조·조달 실시
- 일본이 기존부터 추진하고 삭감 효과가 실증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을 ASEAN 각국에 전개
- 공기 중의 CO2 회수·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삭감의 비즈니스화
-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단계적 이행에 필수적인 축전 기술의 일본-ASEAN에서의 공동 개발 및 구현
- 재해시 에너지 부족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의 ASEAN 각국에의 보급·전개
- ASEAN 역내에서의 오픈한 전력·온실 효과 가스의 융통 인프라와 메커니즘의 실현
- 에너지 그리드의 단계적 개방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스몰 그리드 기술의 일본-ASEAN 공동개발
-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가시화 추진
- 2국간 신용제도(JCM) 등의 기존 구조를 활용한 탈탄소 기술·재생 가능 에너지·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
- 국제 송전망의 ASEAN 전역 정비
- ASEAN 역내 강점인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창조
- 순환형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블루 이코노미의 일본-ASEAN 공동연구·사회 구현

#### 생활 속에서의 지속가능성

- ASEAN 전역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 기반 구축, 규칙 제정, 인식 제고
- 용기 등 재활용 대상 제품의 규격 통일 등 규칙 형성 추진

- 3R 철저 및 절약정신 등 습관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계몽활동 실시 및 금전적 인센티브 설계
-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타 소재의 활용, 재활용, 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기술 개발 및 ASEAN 국가로의 확산
- 폐기물 재이용 기술 향상을 위한 음식물 찌꺼기 등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 전자폐기물(E-waste) 처리기술 향상을 위한 한-아세안 기술기반 정비
- 산-관-학 순환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 가속화
- ASEAN 각국의 회복탄력성 향상 및 웰빙 실현
- 재난 발생을 전제로 한 적응기술의 일본-ASEAN 공동 개발
- ASEAN 각국 주요 인사들과의 협력 강화 거점 구축 사업인 MExx 구상을 통한 인재 양성 및 패키지화된 의료 기기 및 서비스 전개 등을 통한 현지 표준화된 의료 확립 지원
- ASEAN 각국의 도시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메가시티와는 다른 지방도시의 새로운 발전 모델 구상

## 2. 국경을 초월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 기술 혁신 추진

- 일본-ASEAN에서의 공동연구 기회 확충
- 일본이 강점을 가진 고부가가치를 낳는 기술을 ASEAN의 사회과제 해결로 연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현지 기업·대학교 등과의 공동창조 촉진(기술 사례: 바이오테크놀로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기술, 푸드로스 등에 관련된 식품 로지스틱스나 식품 재활용 관련 기술, 돌봄 등 헬스케어 관련 기술,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사회과제 해결에 필요한 환경 관련 기술 등)
- 일본-ASEAN에서의 공동연구환경 정비
- 공동연구에 필요한 기존 현지 연구개발 거점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정비
- 일본의 기업·대학교가 ASEAN의 현지 기업·대학교와 교류할 수 있고 연구자들이 ASEAN 기업과 공동연구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구조 등의 공동 창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구조와 커뮤니티의 형성

## 비즈니스 모델·이노베이션의 추진

### ■ 일본-ASEAN에서의 가치 공동창조 기회 확충

- 일본-ASEAN 시장의 잠재력과 사회 과제 및 사회 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지식, 노하우 등의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 상에 대한 일본-ASEAN의 공동창조 가이드라인과 최적 사례 작성을 통해 함께 유재산화하는 구조의 구축
- 매칭에서 일본-ASEAN 기업(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니즈와 강점을 파악하여 일본-ASEAN에서의 사업 전개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육성
- 일본-ASEAN 기업(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만남을 촉진하는 매칭의 "장" 구축
- 젊은 창업가 및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 일본-ASEAN에서의 가치 공동창조 환경 정비

- 일본-ASEAN 기업(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장"과 "자금",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창조 환경의 정비
- 일본-ASEAN 기업의 신산업 창조 촉진을 위한 "산업 프로듀싱 기능 강화" "규칙 정비" "자금 지원" 촉진
-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정책 등 공정한 시장거래·경쟁환경을 담보하는 구조 정비

## **3. 사이버 피지컬 커넥티비티 강화**

### 물리적 연결성 강화

- 일본-ASEAN에서 함께 정비하는 강인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질 높은 인프라 정비
- 일본-ASEAN의 신뢰관계에 근거한 질 높은 경제기반 인프라 정비의 추진(예: 동서경제 회랑과 남부경제회랑, 해양 ASEAN 경제회랑 등에서의 도로·교량·항만·공항·발전시설 등의 정비, 5G 기술과 해저 케이블 등의 통신망 등의 디지털 기반 정비)
- 인프라 수명 연장 기술 활용한 인프라 정비
- 일본-ASEAN에서 함께 배우는 인프라 유지관리 기술

- 일본이 가진 인프라 유지관리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활용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의 인프라 유지관리 방법 등 인프라 유지관리 기술 향상
- 새로운 인프라 정비와 운용에 관한 제도 설계와 규칙 형성
-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및 디자인 도입과 관련된 일본-ASEAN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기준 마련(예: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틱스, 우주 인프라, 방재 센싱 등)
- 스마트 시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용·거래에 관한 룰·제도의 협동 책정
- 제도적 연결성 강화
- 물류·상류·금류의 일체화에 의한 원활한 일본-ASEAN 간 거래 실현
- 디지털화의 추진에 의한 정보 협력의 번잡성 및 경제 협력 협정 적용 누락의 해결
- 디지털 화폐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금융 블록체인 구축
- ASEAN 전체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유 효율화
- 블록체인 기술 등의 디지털화 추진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등의 무역 수속 효율화
- 일본-ASEAN의 통관·관세 절차의 공통화·조화화
- 일본-ASEAN에서의 데이터 연계 실현
- 서플라이체인상의 탄소발자국 및 인권 등 고도의 데이터 연계 실현
- 데이터 관리에 기밀성과 신뢰가 요구되어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아기수첩 등의 분야에서의 데이터 연계 구조·플랫폼 구축
- ASEAN발 국제적인 거래 규칙 형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플라이체인 고도화(강인화, 그린화) 촉진
- 탈탄소와 인권의 대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서플라이체인 구축
- 데이터 협력의 이점 구축,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의 규칙 형성, 데이터 주권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
- ASEAN의 데이터 연계 및 공유에 관한 사례 구축
- 기업의 틀을 초월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버 시큐리티 확보 등 법 정비

#### 4. 활력 있는 인적 자원을 공동 창조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 인재 교류 기회의 최대화

- 일본-ASEAN을 무대로 한 브레인 순환 실현
- ASEAN과 일본 상호 유학 및 연수, 인턴십 기회 확대
- 일본과 ASEAN의 장래를 담당하는 세대의 경영자, 창업가, 연구자, 정책 관계자의 교류 기회 창출
- 기업이 고급 인재의 수용을 촉진하는 인재 요건의 언어화·수용 체제·생활 환경의 정비 등을 촉진하는 환경 정비
- 일본-ASEAN을 무대로 한 인재 환류와 관련된 장벽 철폐를 통한 환경 정비
- 디지털 기술이 고용·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실시

##### 인재육성 기회의 최대화

-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ASEAN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극대화
- 일본의 젊은 인재의 ASEAN 기업으로의 취직과 인턴, 일본의 젊은 창업가의 현지 파견 촉진
- 재ASEAN 일본기업과 일본 본사에 대한 ASEAN 인재의 취업 및 ASEAN 간의 인재 교류의 활발화 지원
- ASEAN 현지 대학교와 연계를 통해 고등전문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공학적인 실무 교육 실시
-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일으키는 소셜·안트레프레너 등의 인재 배출 촉진
- 기업가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투자가 등의 인재육성
-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사회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여 기업에 임할 수 있는 인재육성 환경의 정비
- 일본-ASEAN 인재육성 네트워크 형성
- 일본-ASEAN 기업의 젊은 인재, 간부 후보생을 쌍방으로 육성하는 네트워크 구축 촉진
- 산·관·학·금융 등 복수 기관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바이·멀티 쌍방의 네트워크 활용

## 5. 4가지 기둥 외의 산업·분야 횡단에서의 대처

- 식량 안보 실현을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
- 파이낸스를 통한 과제 해결
-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형 사업에 대한 민간자금의 새로운 흐름 창출을 위한 임팩트 지표 정비 및 방법론 확립
-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과제 해결
- 일본-ASEAN의 중소중견기업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 설정

(“日ASEAN經濟共創ビジョン”에서 발취.)

## 참고2: 미래 경제·사회를 공동창조하는 파트너

우리는 다음을 통해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강인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번영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통의 경제·사회 문제에 함께 대처하며, 인간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

- i. "ASEAN 공동체 비전 2025" 실현을 위한 ASEAN의 통합 및 공동체 구축 노력 및 "ASEAN 공동체 비전 2045"에 관한 ASEAN의 강한 열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개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한다.
- ii.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제도·인재 개발, 교류 등을 통해서, 일본-ASEAN간의 하늘의 연결성을 포함한, 연결성을 강화한다.
- iii. 스마트 시티 협력을 강화한다.
- iv. 중소 영세기업(MSMEs) 및 스타트업에 대한 것을 포함한 이노베이션을 지원한다.
- v. 공중위생, 의료 및 복지에 관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vi. 서플라이체인의 강인성 및 신뢰성을 강화 및 확보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 등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vii. 기함 프로젝트와 지역적 또는 다수국간의 틀 및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무역·투자를 원활화한다.
- viii. 금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룰·스탠다드를 준수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

금융을 촉진한다.

- ix.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시아·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구상 등의 일본의 대응에 유의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전보장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길을 통한 에너지 이행을 가속한다.
- x.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
- xi. 인도 지원 및 재해 구조, 재해 리스크 삭감 및 재해 관리에 관한 협력 강화를 포함해 재해에 대처한다.
- xii. 디지털화, ICT 솔루션 및 인공지능(AI)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 xiii.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시스템을 구축한다.
- xiv. 외국인 노동자의 적정하고 적절한 노동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xv. 여성, 장애인, 지방 주민 및 기타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 xvi. 정부개발원조(ODA)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활용한다.

(“日本A S E A N友好協力に関する共同ビジョン・ステートメント”에서 발취체.)



### <참고문헌>

- 経済産業省 "日ASEAN経済共創ビジョン" (2023.8.22.)
- 首相官邸 "日ASEAN友好協力50周年 総理の取組" [https://www.kantei.go.jp/jp/headline/asean\\_jp/index.html](https://www.kantei.go.jp/jp/headline/asean_jp/index.html)
- 首相官邸 "日本ASEAN友好協力に関する共同ビジョン・ステートメント" (2023.12.17)
- 外務省 "日・ASEAN包括的経済連携協定"  
[https://www.mofa.go.jp/mofaj/gaiko/fta/j\\_asean/index.html](https://www.mofa.go.jp/mofaj/gaiko/fta/j_asean/index.html)